日帝때 受難자료 汎基督 수집運動

20개教團 韓-日문제대책협의회 발족

적극적 對應자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예의 주시하다가 최근 克日운동에 참가한 기독교계는 국제조직까지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개신교 20개교단 대표들은 지난1일 기독교 韓-日문제 대책협의회 (회장 朴致淳목사)를 정식 발족시키고,「세계교회와 손을 잡아 일본의 군국주의화경향을 국제여론에 호소, 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나섰으며, 예수교장로회 기독교장로회 기독교감리회등 선교1백주년기념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단들도 日帝의 기독교탄압을 고발하는 자료관을 기념관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교회사연구원 (원장 金光洙목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趙承赫목사), 한국선교문제연구소 (소장 高植圭목사) 등 연구기관들도 일제때의 교회수난및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자료수집에 나섰다.

「受難館」 건립도 계획

日 軍國主義化경향 세계敎會에 호소

한국 개신교 1백주년 사업에는 장로교·감리교 4개교단과 협의회등 5개단체가 각기 별도의 1백주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교문제연구소는 기념관에 「일제의 우리교회 탄압내용을 밝히는 한민족교회수난관과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관을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해당단체들의 호응도 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국민教育場으로도

高植圭목사는 「교회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각 교단이 짓는 기념관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일제의 만행등 온갖 수난을 의연히 [illegible] 성장해온것을 밝히는 자료관이 함께 들어가 민족의지를 되살리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제가 종교계에 가한 탄압은 神社참배강요, 무더기학살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교회활동까지도 하나하나 간섭하고 압제했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지적, 일제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 사실과 일부 찬송 역시 금지시킨 구체적인 사례들을 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個교회중심의 한국 개신교의 경우, 교세확장등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와, 선교 1백년이 2년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과거에 대한 정리나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에는 부족한점이 많다고, 교계 안팎의 자성적 지적이 폭넓게 일고 있다.

金光洙목사는 국내의 교회사연구자료는 상당히 수집되어 있으나, 해외에 산재해있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되거나 연구된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한국교회의 수난극복사를 완성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가르칠 자료로 활용하기위해 교회연합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海外에 진짜 資料

해외의 한국교회자료 수집에는 국외유학 신학자들의 개별적인 노력등으로 얼마간의 새 史料들이 국내에 반입된것도 있지만 개인연구의 미미한 수준을 넘지못하고있다. 단체로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미국장로교역사학회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와 3·1운동당시 지방교회들의 활동, 성직자들이 해외에 보낸 지원호소문등이 국내에 소개된일이있다.

이같은 한국교회 관계자료들은 한국에 와있던 외국선교사들이 본국교단본부에 보낸 보고서를 비롯, 주요사건의 배경분석, 증거사진등 다양하게 있으며,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유럽의 교회연합기관에도 상당히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들 자료를 국내에 가져오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해외자료수집을 계속사업으로 확정, 선교 1백주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작업을 벌여 한국교회사 자료를 폭넓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金容福박사 (同院부원장)는 밝혔다.

成長史 소개도 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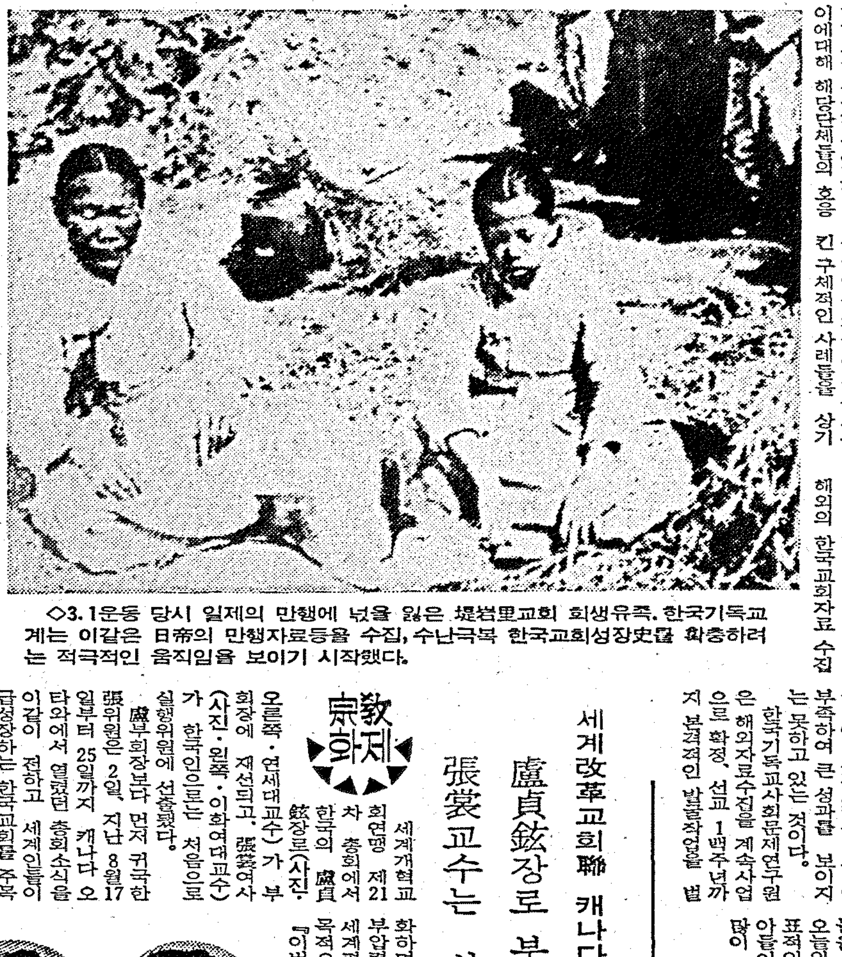
개신교1백주년기념사업으로 뒤늦게 불이 붙은 교회사 자료수집작업은 일본의 한국사외곡사건이 확인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일제때의 수난극복자료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한국선교문제 연구소는 각 교단 연구단체와 협력, 지금까지 발굴된 주요자료들을 이달중에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독교계의 자기좌표 재확인작업과 함께, 반성을 촉구하는 아픈 지적들도 나오고있다. 재정난으로 압류위기에처한 東京한국YMCA돕기운동등이 범교단적으로 거론되며, 自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東京한국Y문제」는 급성장하는 한국기독교가 개교회중심으로 자신만을위하고 남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못하는 오늘의 실태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례처럼 부끄럽게받아들이는 기독교지도자 들이 많이 눈에띄고 있다.

<徐熙乾기자>



◇3.1운동 당시 일제의 만행에 넋을 잃은 堤岩里교회 회생유족. 한국기독교계는 이같은 日帝의 만행자료등을 수집, 수난극복 한국교회성장史를 확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十字路

서울근교에 文化센터 건립계획

내년 2월 50만坪 규모로 着工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신체단련장을 겸한 문화동산건설을 민간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

주택건설회사 엘리트 그룹(회장 鄭成謨)은 젊은이들이 여가를 즐기며 전통문화와 민족史를 배우고 신체단련을 통해 개척·준법·봉사정신을 높일 수 있는 문화타운을 서울근교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나 강이 접해 있는 山地를 개발, 문화적 이해를 증대할 수 있는 한국문화관·역사관·민속촌·전통예술공연장·민속공예품전시장·심신단련장·유스호스텔·콘도미니엄등 종합문화-관광시설을 갖춰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사업을 펴보이겠다는 엘리트 그룹은 50여만평 규모의 적당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

▽…엘리트 그룹은 미국의 샌디에이고와 뉴욕에도 현지법인을 설립,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宗 敎〉

宗敎화제

세계改革교회聯 캐나다서 총회

盧貞鉉장로 부회장 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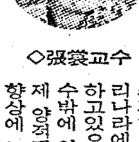
張裳교수는 실행委員에

세계개혁교회연맹 제21차 총회에서 한국의 盧貞鉉장로(사진·오른쪽·연세대교수)가 부회장에 재선되고, 張裳여사(사진·왼쪽·이화여대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실행위원에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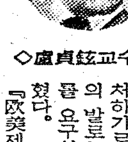
盧부회장보다 먼저 귀국한 張위원은 2일, 지난 8월17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던 총회소식을 이같이 전하고 세계인들이 급성장하는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교회연맹은 예수교장로회의 세계적인 협의기관으로 서구기독교국가뿐만 아니라 소련 쿠바 폴란드등 공산권까지 포함한 80여개국의 1백51단체가 가입, 7천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단체이다. 이 연합기구는 기독교인들의 유대를 강화하며 복음에 위배되는 외부압력, 지배, 불의에 맞서 세계평화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제3세계의 발언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느꼈읍니다. 서구 유럽의 강대국을 제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알렌 보삭氏가 회장에 당선된것은 제3세계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난것을 보여준것이지요. 또 놀라운 사실은 개혁연맹이 남아프리카내 白人교회의 참여를 거부한것입니다. 현재 그곳에서는 인종차별과 종족분쟁으로한교회내에서도백인과 흑인이 따로 예배를보고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본뜻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것으로, 개혁전통에도위배되는현상입니다. 때문에 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우리연맹은 계속이들을 지원하게 될것입니다.』



◇張裳교수



◇盧貞鉉교수

張교수는 이번총회에서 사회구조적인 부조리에 적극대처하기로 하고, 이러한 정신의 발로로 핵무기 무장해제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밝혔다.

『歐美제국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해가는데 동양에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급성장하고있으니 그들의 관심이클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도 이제 양적팽창뿐 아니라 질적향상에 노력하여 모범을보여야하겠읍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이 무거워졌다면서 질적향상을 강조한 張교수는 부부신학자이기도. 연세대 신학대학장 朴俊緖박사가 부군이다.

<方熙晳기자>

宗敎界소식

拉北된 金有淵목사 遺稿출판기념예배

拉北된 金有淵목사(사진)의 遺稿출판기념예배준비위원회(위원장 鄭晋慶목사)는 유고「福音의講壇」을 펴내고 4일오후3시 서울신촌 성결교회교육관에서 기념예배를 갖는다.

신의주, 서울무교동성결교회 (현 중앙교회) 담임, 경성신학교 (서울신학대학) 교수등을 역임한 金목사(사진)는 6·25때 피랍되어 북으로 끌려간후에도 종교적투쟁을 벌이다가 51년7월 북괴 정치보위부에 연행된후 생사소식이없다.

佛敎문화원 설립

太古宗 8일 개원식

불교 태고종은 서울성동구 중곡동에 있는 前중곡극장을 인수, 불교정신문화원을 설립하고 8일오후2시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호국안민 불교중흥법회도 함께 연다.

루터란아워 강습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와 루터란 아워에서는 작가지망생을 위한 강습회를 13, 14일 성결회관(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 갖는다. 마감은 8일. (553)4275.

一事一言 丁字鳳

情이 많은 이웃

情感은 어릴때 길러지는 것

작가 헤밍웨이는 어떤 글에서 우리의 인격은 遺伝, 환경,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했다. 나는 유전이 얼마만큼 우리 성격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마는 환경과 교육 두가지를 놓고 말한다면, 환경 (특히 어릴때의 환경)이 더 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情感이나 정서는 가르치는 것만으로 함양될수없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남을 도와준다는것은 옳은 일이다 하는 이치는 누구라도 배우면 다 알수 있는 일이지만, 역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져서 어떻게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한 귀한 마음은 천성으로 타고나거나 착한부모 (특히 어머니) 의 아낌없는 사랑에 의해 싹트는 것이다. 그것도 머리나 이치로 하는 차가운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뜨거운(때로는 눈물겨운) 사랑으로 키워지고 길러진다. 그리고 그 정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중요한부분이 되어 평생토록 그를 지배한다.

自然시인 워즈워드는 늙어진 뒤에도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않는다면 죽는게 낫다고 읊은 다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 말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뜻인데, 그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린시절에 길러진 그 정감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듯이.

이렇게 섬세하고 풍부한 정감을 가진사람은 한포기 풀잎에도 가슴 설레고,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하며 그렇게 고상하거나 거창하지않은 사소한 일에도 감격하고 만족한다. 또 이런 사람은 그릇이 작기에 사회에 크게 공헌하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사회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이 쓴 글이나 작품은 언제나 독자를 감동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달픈 세상살이 일망정 살맛나게 한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대중이 옳다고 하지 않으며, 그들더러 「나를 따르라」고 큰 소리로 외쳐 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困窮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을 우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慶南大師大학장·英文學>

文化短信

李相甲 작품전

조각가 李相甲씨의 작품전이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공간미술관에서 열리고있다. 서울대미대를 나온 李씨는 空間미술대상전조각賞(77년) 國展大賞 (80년) 등을 수상했고, 각종 그룹전에 출품해왔다. 첫번째 발표전에 李씨는 오랫동안 추구해온 「間」시리즈를 통해 물체의 容積과 그 물체가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여 가지는 속성을 보여주고있다.

추상회화-조각展

토탈미술관 개관 기념

토탈미술관 (5791)이 문을 열고, 개관기념으로 추상회화와 조각작품전을 4일부터 14일까지 연다. 개관전에는 조각의 金栽浩 金貞淑 朴藍玉 朴石元 沈文燮 李相甲 李升澤 鄭官謨 崔起源씨, 회화의 金鮮會 金鍾根 金鎭石 金泰浩 金洪錫 朴栖甫 朴庄年 徐承元 李東熀 李斗植 李承祚 李正枝 李泰鉉 鄭永烈 丁昌燮 崔明永 表承鉉 河東哲 河鍾賢 韓鎬榮 韓永燮씨가 출품한다.

吳勇鶴 회화전

心齋 吳勇鶴씨의 회화전이 2일부터 7일까지 서울덕수미술관에서 열리고있다. 일본에서 출생한 心齋는 中京미술학교에서 수학, 인물및 산수 화조를 두루그려왔다.

鄭德永 개인전

鄭德永개인전이 1일부터 7일까지 관훈미술관 2층에서 열리고 있다. 鄭씨는 홍익대미대를 졸업, 앙데팡당전 서울현대미술전등 각종 현대미술제에 참가하고 있다.

「82繪畵의 메타포」

「82회화의 메타포」가 2일부터 8일까지 동덕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이화여대 대학원 서양화과 동문들의 그룹전으로, 金東瑛 金舜慈 朴敬美 朴光珍 禹順玉 田姬秀 蔡美賢씨등이 출품.

時調 짓기 대회

민족문화협회 開天節 기념

민족문화협회 (회장 李殷相) 는 문공부, 문예진흥원 후원으로 개천절기념 제7회 시조짓기대회를 연다. 예선마감은 9월10일이며, 예선제목은 학생부가 「압록강」, 일반부는 「동창의 아침해」이다. 본선은 10월3일 경복궁에서 가진다. 원고접수는 서울종로구 원남동 194 사무국. (763)9981.

산업기술 진흥협부회장에 金永佑씨를 선임

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許愼九)는 前全經聯상무 金永佑씨를 최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가야금-단소 강습

풍류회 (회장 홍경태) 는 1일부터 30일까지 가야금, 단소 무료강습회를 가진다. (362)4605.

千年恨 (517)

劉賢鍾

金榮注 畵

凱旋②

아침에 일어난 이화의 얼굴표정은 봄을 맞이한 진달래꽃 빛깔이었다.

『원수저하.』

탁준경이 찾아왔다.

『어서오게 탁장군. 그래 어젯밤에도 벌거벗고 잤나?』

『옛?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벗고자다니요?』

『잠을 잘때는 뭐든 몸에 걸치면 잠이오지 않는다면서?』

『아, 예.』

그제야 말뜻을 알고 탁준경은 활짝 웃었다.

『버릇이 그런걸 어쩝니까?』

『그러면서도 고뿔 한번 안걸리니 그게 이상하단 말야?』

『오히려 입고자면 고뿔에 걸릴것입니다. 원수저하, 함주로부터 반가운 손님 한분이 방금 당도했읍니다.』

『반가운 손님이라니?』

『시어사 (侍御使) 언순공 (彦純公) 이 오셨읍니다.』

『지금 어디 있나?』

『바로 문밖에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라하지 않구서 뭐하나?』

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방문이 열리며 사십여세 나보이는 학자풍의 사내가 들어섰다.

『아버님.』

『시어사!』

『절 받으십시오.』

윤언순이었다. 그는 큰절을 올렸다.

『그간 무고하셨읍니까?』

『그래 나는 건강하다. 너는 어떠냐?』

『소자도 무병합니다.』

『함주 (咸州) 에서 오는 길이라구?』

『예, 보름전에는 개경에 다녀왔읍니다. 어머님도 평안하시고 집안은 무고합니다.』

『오 그래? 알았다.』

『예.』

『조정 소식이 궁금하구나.』

『주상 (主上) 께서는 몹시 기뻐하고 계신다했읍니다.』

『그래? 다행한 일이로구나.』

『조정의 중신들은 계속되는 북진을 반대했다 합니다.』

『그건 나도 전해들어서 알고 있었지.』

『기별이 왔었나요?』

『서경 (西京) 에서 왔었지.』

함주 일대를 평정하고 영주성과 웅주성 복주성 길주성을 축성했을때 조정에서는 더이상의 북진을 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일었었다. 엄동설한의 겨울로 접어들었는데도 계속 북진을 한다면 눈과 추위때문에 군량수송로가 막혀버리고 대군은 눈보라속에서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리란 것이었다.

그러나 윤관은 고집을 꺾지않고 북진을 계속했다.

『여진 북벌이 불가하다는 여론을 의식하고 윤관은 전공을 세우는데만 급급하여 대군을 사지 (死地) 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그를 소환하고 대원수를 오연총이 맡도록하소서.』

조회때마다 일부의 중신들은 그렇게 간했다. 임금도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다가 별 사고 없이 윤관의 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진을 계속하자 더 두고보자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장계작성은 다 끝나셨는지요?』

『물론이다.』

『아뭏든 최대의 강역을 이룩하시고 이제 개선하시게 되었으니 소자 무엇보다 기쁘기 이를데 없읍니다. 어찌 이게 소자만의 기쁨이겠읍니까? 온나라의 기쁨입니다.』

9월호발매중!
月刊朝鮮 9
特輯 유언비어
時間講師, 大学의 파출부
續 장씨녀전
張씨녀, 徒30년
지금 歷史의 왜곡과, 왜곡의 歷史
韓國의 學風·學脈 ⑨ 神學
朝鮮日報社 값 2,500원

보건사회부 신약보호허가품목
잘낫지 않는 기침·호흡곤란에!
심하고 오래된 숨찬 기침 · 기관지천식 · 감기로 인한 기침에
에도필
건강의 맥박! 남강제약
TEL: 445-5701~4
가격100정 : 12,000원
100㎖ : 1,800원

〈양재·양복·한복〉 관인 시대복장학원 〈단기취업특강〉
특수복 기성복 수출복
재단, 재봉, 디자인 전문교육!
현역실무 기술미숙자 전문교육
특설 : 해외이민반(특수미싱)
야간·새벽반 개설
통금해제! 야간새벽반 개설
〈기능검정대비반〉
※복지 실기실습을 위주로 한 능력별 개별지도식 특수교육 ※정원내 수시접수함. ※단기교육후 직시직소에 배출함. ※개업, 취업, 취미, 유학반, 기숙사제공, 홍학권 발급
종로2학원 ☎(724)2111·1229 종로2가네거리 태극당옆
영등포학원 ☎635 2251·2252 영등포시장앞 영보극장옆
서울역학원 ☎753 0037·0038 서울역앞 대우빌딩 남대문서옆
동대문학원 ☎(765)2252·2253 동대문한일은행 창신지점옆
청량리학원 ☎(966)3700·3800 청량리 로타리 신탁은행 빌딩

소원약국
서울 도봉구 미아3동 209-1
신일중고등학교 정문앞
전화문의 988-0691

讀者와 함께 번영하는 신문
韓國最高의 權威紙
朝鮮日報
구독신청 (724)7650
배달사고 (725)7303

三·一자동차학원
운전
(566) 1531 4531 3162
○국내최대의 시설과 높은 합격률
○스쿨버스 무료운행
○직장단체·부녀자·학생환영
강남구 역삼동719
영동 테헤란로 반도유스호텔앞

신포장발매
손에도, 입에도, 위장병에도
딱 맞는 간편한 작은병—위장약!
물약을 찾으시는 분을 위해 마련했읍니다.
위산과다, 위염, 위·십이지장 궤양으로—
● 속이 쓰리고 아플 때 ● 신트림이 나올 때
● 신물이 넘어올 때 ● 속이 꽉 찬듯 답답할 때
거뜬한 위장약!
BAYER ® 탈시드 현탁액
1병에 1,200원—부담이 없읍니다.
한국바이엘약품

관광안내

매일출발·단체예약접수
제주 홍도 흑산도
4~5日 11~12日 가야산·해인사
당일 팔봉산 홍천강 남이섬 청평 유명계곡 용계조계 용문산
명보극장 로터리 ☎(272)5561-3 (야간 572-2579)
동진관광

자연농원 민속촌
남이섬 청평 속리산 제주도 11~12 설악산
신혼·회갑 단체여행 환영
기차표·고속표·항공권·렌트카
광화문 ☎(725)9341~5
국제극장옆 전국유명호텔 예약
세일관광

단한분이라도 정성껏 모십니다
수안보(온천)
4~5 11~12 부곡온천과 해인사
12 ※부곡관광호텔 숙박
9月5日 당일 백운, 유명계곡 화양계곡
광교사거리 ☎(722)4452-3·8413-4
삼용관광

9月1日부터 정기운행개시!
水安保
서울發09時·수안보 16時30分
정기운행 도고·온양
민속촌·자연농원
9·10月 신혼회갑 제주도 단체환영
을지3 쌍용빌딩앞 영등포☎6447
☎(267)3542~4 ☎(267)2571~2
코오롱관광

당일 유명계곡 화양구곡 홍천江 비금계곡 무주구천동 소금강
매일 개인 단체 신혼 효도 제주도 9·10月
KAL 항공권예매 (778)8848~9
☎(723)0201 ☎(724)9500·9939
롯데관광

최신형 고속리어 엔진버스전세
매일 제주도 홍도
9月 7~9 한려수도 11~12日 설악산
화양계곡 유명계곡 용문사 수안보온천 조령산 홍천강
●항공권·기차표·호텔예약●
☎(720)8811~5 ☎(723)(725)3340
동성관광

매일출발 자연농원 민속촌 제주도
5日 당일 화양계곡 고수동굴 철원8경 대둔산 유명산 치악산
11~12日 설악산 5日당일 수안보온천
☎(777)3651 ☎(778)8001 ☎(590)8012
오이씨

★단한분이라도 매일 모십니다
설악산 제주도
교통편·관광편 (신혼·효도·단체)
매일 자연농원·민속촌
9/11~12 백암온천과 성류굴
9/11~12 부곡온천과 해인사
10~12한려수도와 해금강
당일 화양계곡·고수굴·남이섬
☎(734)0201 ☎(764)7788 ☎(590)1740
대원관광

매일출발 설악·濟州
濟州道 당일 수안보
※9月5日 당일코스※
화양계곡·수안보온천
771-31 대대표 777-7151
남대문 그랜드호텔 101號
고려여행사

매일출발 제주도 단체환영
10~12日 한려수도
4~5 11~12 무주33경 마이산 유성
5日 계룡산·도드람산 등산 남이섬·산정호수
명보극장 매표소옆 273-3421~5
南山觀光

매일출발 자연농원·민속촌 수안보온천·제주 10~12日
=9/5日당일 코스= 속리산
용문사 화양구곡 홍천강 춘천위도 남이섬 백운계곡 유명계곡 고수동굴
광교사거리 ☎(725)6161-5
종로신신옆 ☎(722)5341-5
초원관광

설악 =매일출발= 교통편·관광편 명성·한국콘도 가족단위독방제공
매일출발 濟州道·濟州道
신혼·단체9, 10, 11月예약접수중
11~12부곡온천·해인사
5日 당일 유명계곡, 화양계곡 팔봉산, 오봉산
태평양은행 차량이에어콘완비 ☎(720)8571-3 (구 워커힐 교통)
태평양교통

매일출발 자연농원·민속촌
동대문이스턴호텔출발764-5200
매일출발 수안보 제주도
당일 남이섬 유명산
☎(778)3001~5 ☎(777)7001~2
金星관광

신혼·회갑 일반 단체 濟州道
◎수학여행 상담환영◎
매일출발 자연농원 민속촌
청량리 965-2724~5
※서울예식장과 종로구청사이
720-7441-3·722-5530
파나관광

=9月15日 매일운행개시=
서울⇄완도 (제주)운
수안보·백암 온천
11~12 무주구천동과 마이산
〃 설악산·백암온천
5日 당일 고수굴, 속리산, 남이섬 화양계곡, 충게소금강
☎(753)0601~5 ☎(776)5241~2
한남관광

단한분도 매일출발 합니다
수안보
11~12 덕유산등산 15時出發
11~12日 무주구천동과 마이산(유성)
제주도 단체·개인·신혼 9月, 10月 예약중
9/5日 유명산·오봉산·팔봉산 등산·관광 백운계곡·화양구곡
☎(777)8711~6 조선호텔앞출발
경남관광